

연예뉴스 HOT 3

해병대 최민호, 휴가 반납하고 호국훈련 참가



해병대 제1사단에서 복무 중인 그룹 사이니의 멤버 최민호가 전역 전 휴가를 반납하고 호국훈련에 참가해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해병대는 공식 SNS를 통해 “최민호 병장이 예정대로라면 27일 전역 전 휴가를 간 후 11월 15일 집에서 국방의 의무를 마치게 된다”면서 “하지만 호국훈련에 참가해 훈련 및 개인 전술전기에 대한 노하우 전하기 위해 20일의 전역 전 휴가를 반납하고 부대에서 전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민호는 지난해 4월 해병대에 입대했다.

송혜교, 김좌진 장군 기념관에 부조작품 기증



배우 송혜교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함께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시 한중우의 공원 내 김좌진 장군 기념관에 대형 부조작품을 기증했다. 21일 서 교수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청산리 전투 100주년을 기념해 청동으로 제작한 가로 80cm, 세로 90cm 크기의 부조작품을 전달했다. 2005년 세워진 김좌진 장군 기념관 입구에는 김좌진 장군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3월에는 봉오동 전투 100주년을 기념해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 주립과학도서관에 흉범도 장군 대형 부조작품을 기증하기도 했다.

학폭 논란 갓세븐 영재 “한 차례 다름 뿐”



그룹 갓세븐의 멤버 영재가 학교폭력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한 누리꾼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영재가 전남 목포기계공업고 재학 당시 장애가 있는 동창생을 괴롭혔다”고 주장해 논란이 커지자, 21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영재에 확인한 결과, 학창시절 급우 간 물리적 충돌까지 이어진 다툼이 한 차례 있었고, 그 후 화해하지 못하고 지낸 것은 맞지만 글쓴이가 주장하는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글쓴이에게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연락을 취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발라드의 계절이 돌아왔다



“가을엔 역시 발라드!” 발라드 가수들이 잇따라 컴백해 감미로운 멜로디와 가사로 깊어가는 가을을 물들이고 있다. 사진은 ‘발라드 황태자’ 임창정이 최근 열린 정규 16집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임창정표 정통 발라드’를 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모습. 김중원 기자 won@donga.com

임창정·먼데이키즈·폴킴·노을·규현…

‘가을=발라드’…황제들의 귀환

정규 16집 발표한 임창정, 솔직담백 가사 매력 폴킴 27일 신곡 공개…노을도 30일 싱글 발표

발라드의 계절이 돌아왔다. 쌀쌀한 가을바람이 불어 오면서 발라드 가수들도 기다렸다는 듯 몰려오고 있다. 여름부터 거셌던 댄스음악 열풍이 여전히 식지 않고 있지만, 감성 풍만한 계절에 어울리는 선율과 가사가 어느 때보다 반갑다. 댄스곡의 강세와 ‘가을=발라드’라는 불멸의 히트 공식이 맞물리면서 가요시장은 여름보다 더 뜨거운 격전지로 떠올랐다.

임창정, 먼데이키즈, 폴킴, 노을, 규현 등 ‘발라드 황제’ ‘황태자’라는 수식을 달고 다니는 가수들이 각기 다른 색깔로 중무장한 신곡을 내놓고 있다.

우선 매년 가을 애절한 발라드 곡으로 대결하며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임창정이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왔다. 최근 발표한 정규 16집은 한 마디로 작정하고 내놓은 발라드 앨범이다.

타이틀곡 ‘힘든 건 사랑이 아니다’는 기승전결이 뚜렷한 ‘임창정표 발라드’로, 그는 “도입부에서는 낮게 시작해 후렴구에서 급격히 올라가는 스타일이 제 노래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2016년 히트곡 ‘내가 저지른 사랑’의 프로듀서 뱃대지와 함께 멜로디와 가사를 썼다. 특유의 솔직담백한 가사와 대중적인 멜로디 덕분에 일부 음원 사이트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며 인기몰이 중이다.

4인조 보컬그룹 노을도 격전지에 뛰어든다. 30일 싱글 ‘너의 곁에만 땀땀아’를 발표하고 또한 한 번 ‘믿고 듣는 감성 발라드’의 진가를 발휘할 기세다. 특히 지난해 11월 선보인 ‘늦은 밤 너의 집 앞 골목길에서’가 1년이 지난 현재까

지도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짙은 감성과 애절함으로 ‘쌍끌이 흥행’을 이룬다는 각오다.

신곡은 헤어진 연인에게 의미 없는 기대를 하고, 좋았던 시절에 맴돌며 쉽게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는 마음을 담은 곡이다. 담담하고 담백하게 그리움을 이야기하다 결국 주체하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이별 뒤 감정을 섬세하게 담았다.

폴킴도 새 싱글 ‘너도 아는’을 27일 공개하고, 자신만의 감성으로 팬들을 위로한다. 이들에 앞서 먼데이키즈가 오랜만에 발라드로 돌아왔다. 21일 내놓은 신곡 ‘사랑 못해, 남들 쉽게 다 하는 거’는 그리운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을 담은 곡으로, 먼데이키즈와 오랫동안 호흡을 맞췄던 작곡가 한상원과 함께 만들었다.

슈퍼주니어 출신 발라드 가수로 인정받은 규현도 최근 가을 감성을 품은 ‘내 마음을 누르는 일’을 공개하고 팬들과 만나고 있다. 따뜻한 기타 사운드와 서정적인 목소리가 잘 어울리는 정통 발라드 곡으로 팬들의 반응 역시 뜨겁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노을

태국 케이팝 팬들, 반정부 시위 지지 1억원 모금

슈주 팬들 하루만에 2800만원 모아 이유현 대표 “태국한류 지렛대 역할”

그룹 소녀시대 3100만원, 슈퍼주니어 2800만원, 엑소 1200만원 그리고 방탄소년단 690만원…

태국 케이팝 팬들이 올해 여름부터 빠른 속도로 태국의 퇴진과 군주제 개혁 등을 주장하며 석 달째 반정부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시민들을 지지하며 각 그룹의 이름으로 성금을 모아 눈길을 끈다. GOT7(660여만원)을 비롯해 워너원, NCT, 뉴이스트, 레드벨벳, 몬스타엑스 등 대표적인 케이팝 그룹의 팬들도 동참했다. 21일 현재까지 모두 1억원(275만7800바트)을 넘어서 팬들의 힘을 과시하고 있다.

이날 태국 한태교류센터 이유현 대표에 따르면 슈퍼주니어 팬들은 모금 하루 만에

2800만원을 모으기까지 했다. 또 방탄소년단 팬들은 반정부 시위로 당국이 지하철역 등을 폐쇄하자 관련 광고 불매운동에 나섰다. 현지 팬들은 경찰 진압에 맞서는 시위대를 위해 헬멧과 우산 등을 구입하는 데 성금을 쓰고 있다.

이유현 대표는 “최근 고교생들과 대학생들이 대거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대부분 케이팝을 좋아하고 관련 정보를 SNS로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그동안 기부와 헌혈, 환경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이번 반정부 시위를 지지하는 성금 모금도 그 연장선상이라 이 대표는 말했다. 그는 “케이팝 팬들은 이 같은 활동을 모두 한류스타와 아이돌의 이름으로 펼쳐왔다”면서 “이들은 태국 한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게 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안성기 퇴원 후 휴식… “뇌질환 보도 사실 아냐”

영화제·홍보 등 모든 활동 취소

배우 안성기(68)가 건강 이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 뇌질환으로 판명됐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가 나왔지만 안성기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안성기는 이달 초 갑작스러운 와병으로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오다 20일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원 사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안성기 측은 21일 “현재 퇴원에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면서 “건강이 많이 호전된 상태이다”고 말했다. 이어 “어눌한 말투 증상 등 뇌질환 판명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영화 관계자는 “최근 영화 ‘한산:용의 출현’을 촬영하면서 상당한 피로감을 느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날 전했다. ‘명량’의 김한민 감독이 연출해



안성기

한산대첩의 이야기를 그리는 영화에서 안성기는 어영담 역을 연기했다.

안성기는 주연 영화 ‘종이꽃’의 22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당초 언론 인터뷰 등 홍보 활동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입원 치료로 이를 취소했다. 22일 개막하는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의 집행위원장이기도 한 안성기는 영화제 참여 등을 비롯해 당분간 외부 활동을 중단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윤여수 기자

뇌가 색시해지는 하루 두뇌게임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위 정사각형 안에는 1~9까지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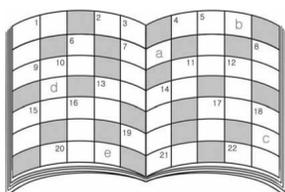
스도쿠문제

		7		2	4	5		
	2						7	
8			1	7				2
7				1		8		
2		8	3		7	4		6
		9		8				7
9				3	2			4
	4						8	
		5	6	4		2		

스도쿠정답

6	1	2	8	7	9	5	4	3
9	8	5	1	6	2	3	7	4
7	9	2	6	5	1	8	4	3
3	2	9	8	7	4	6	5	1
8	2	7	4	9	5	1	3	6
1	4	6	3	8	2	7	9	5
5	3	4	9	2	7	1	6	8
4	6	8	9	2	1	9	8	7
2	8	9	6	7	4	3	5	1
9	2	6	2	1	9	8	7	5
6	2	1	7	4	3	5	8	9

날말문제



가로열쇠

- 01.상대에게 성적으로 끌려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02.총으로 짐승을 잡는 사냥꾼. 04.부르지 않은 손님. 07.입에서 느끼는 맛에 대한 감각. 09.한 종류의 나무로만 이루어진 숲. 11.뱀을 타고 달리는 기세. 13.외손 백은 울리기 어렵다의 뜻. 15.산간

- 지대의 깊숙하고 궁벽한 곳. 17.자
- 쫓밧의 수정. 19.재난을 피하여 멀리 옮겨 감. 20.모델들이 최신 유행의 옷을 입고 관객에게 선보이는 일. 21.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 22.웃음이 세차게 터져 나올.

세로열쇠

- 01.임금이 토신인 사와 곡신인 직에게 제사 지내던 제단. 03.세관에서 발급하는 수입을 허가하는 문서. 05.어떤 일이 앞으로 잘되어 나갈 것을 보여 주는 징조. 06.고기나 생선 등을 양념해 바짝 끓여서 만든 음식. 08.세금을 정해 그것을 내도록 의무를 지움. 10.눈을 한 번 깜짝할 만한 아주 짧은 동안. 11.이름을 적음. 12.땅속의 토사 등의 빈틈을 채우고

- 있는 물. 13.전략적으로 유리한 높은 곳의 진지. 14.누구를 형이라 아우라 하기 어렵다는 뜻. 15.머리를 풀어 헤침. 또는 그 머리. 16.연예인을 뽑기 위한 실기 시험. 17.생선을 소금에 절여서 만든 반찬감. 18.쌀 찌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

날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날말을 풀 다음 a~e칸을 이 어놓으면 책 제목이 됩니다.

